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 탐색

- 월북 이후 이기영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

오탈호*

〈차 례〉

1. 서론
2. 해방기 북한 사회의 생생한 리얼리티 재현 -
리기영의 『개벽』(『문화전선』 창간호, 1946. 7)
3. 일제 말기 지식인의 농촌 생활 적응기 - 『형관』(1946~1947)론
4. 분단 이후 토지개혁의 서사적 안착과 인물 형상화의 괴리 -
『땅』(1948~1949)론
5.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원형 탐색 -
『두만강』(1954, 1957, 1961)론
6.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기영의 월북 이후 작품들 중 단편소설 『개벽』, 중편소설 『형관』, 장편소설 『땅』, 대하소설 『두만강』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적인 시각에서 통합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해보았다. 1920년대 이래로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농민문학의 기수로서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 평가받고, 해방과 분단 이후 '북한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세계를 점검함으로써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단초로서의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해방기의 두 작품인 『개벽』과 『형관』에서는 당대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인물들을 미주할 수 있었다. 먼저 『개벽』은 불안한 지주 황주사와 소심한 소작농 원철지 등을 비롯하여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해방기 북한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형관』 역시 해방 직전의 농촌을 배경으로 강제 징용을 둘러싼 일제와 농민들의 갈등을 그리면서, 농민 김부득과 허달삼을 중심으로 사상범 전력이 있는 문사 박철 등의 일화를 통해 일제 말기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반면에 『땅』과 『두만강』은 ‘토지개혁’과 ‘한국전쟁’, ‘민족해방운동’ 등의 주제에 대한 목적성이 과잉되어 서사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에 해당한다. 물론 『땅』에서 주인공 곽바위에 대한 ‘순이 어머니’의 이중적 시선이 드러나는 대목 등에서는 입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대해 흠모와 감격을 금하지 못하는 곽바위의 생각과 마음을 묘사하는 대목은 ‘수령형상문학’의 전조로서 평면적 인물의 도식주의적 형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두만강』에서도 곶손이가 씨동이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 등은 글공부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당대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서사적 미덕에 해당하지만, 김일성 부대의 ‘항일 유격대원’으로서의 자부심에 넘치는 씨동이의 내면을 요약 기술한 대목 등은 인물의 입체성이 거세되어 평면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기영의 문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적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월북 이후 해방기의 텍스트는 일제 강점기에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서의 감각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문학의 필요성을 제공해주는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분단 고착화 이후 발표된 『땅』과 『두만강』의 경우 당문학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사성의 약화와 함께 인물의 입체성이 평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회의(懷疑)하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의 텍스트가 북한문학의 실체이자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서사적 리얼리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해방 이전의 이기영’과 함께 ‘분단 이후의 이기영’은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합문학의 외연을 넓힐 필요를 제기하는 입체적 텍스트인 셈이다.

[주제어] 이기영(=리기영), 『개벽』, 『형관』, 『땅』, 『두만강』, 토지개혁, 일제 강점기, 한반도 통합문학, 북한문학, 북한소설

1. 서론

이 논문은 이기영의 분단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합문학의 (불)가능성을 점검해보기 위해 작성된다. 주지하다시피 이기영(1895.5~1984.8)은 일제 강점기인 1924년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로 등단한 이후 카프 맹원으로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1925), 『민촌』(1925), 『농부 정도룡』(1926), 『쥐이야기』(1926) 등을 비롯하여, 『고향』(1933) 등의 장편소설,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1933) 등의 평론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기수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월북하여 1946년 4월부터 조쵸친 선협회 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196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단편소설 『개벽』(1946),

중편소설 『형관(荊冠)』(1946, 개작본 『농막선생』(1950)) 등을 비롯하여 장편 소설 『땅』(1948)과 대하소설 『두만강』 5권(1부 1954, 2부 1957, 3부 1961) 등을 창작한 바 있다.

이기영에 대한 연구는 1988년 월북 작가 해금 이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바 있다. 단행본만 해도 10권 내외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¹⁾ 이외에도 다양한 소논문의 연구 성과들이 집적되고 있고,²⁾ 학위논문들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³⁾ 물론 월북 이후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땅』과 『두만강』에 집중되어 있음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⁴⁾

이외에도 이기영의 월북 이후 문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
- 1) 이상경, 『이기영-시대와 문학』, 풀빛, 1994; 정호용 편, 『奎永永』, 새미, 1995; 김홍식, 『이기영 소설 연구』, 중앙대 출판부, 1996; 김상선, 『민촌 이기영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조남현, 『이기영 : 이야기꾼 · 리얼리즘 · 이데올로기』, 건국대 출판부, 2002; 권유, 『민촌 이기영의 작가세계』, 국학자료원, 2002; 이성렬, 『민촌 이기영 평전』, 삼지, 2006; 조남현, 『이기영』, 한길사, 2008; 김홍식, 『작가 이기영, 그 치열한 삶과 문학적 진실의 수준』, 예유, 2020 등이 있다.
 - 2) 김강호, 『이기영의 『두만강』론』, 『문창어문논집』 27집, 문창어문학회, 1990, 167~186쪽; 박태상, 『이기영의 농민소설 『땅』에 나타난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 『북한학연구』 1집,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0, 225~252쪽; 박태상, 『새로 발견된 이기영의 『기행문집』 연구 :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소련』, 『북한연구학회보』 5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1, 5~27쪽; 임옥규, 『『두만강』의 구조와 담론 특성 연구』, 『성심어문논집』 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209~246쪽; 신형기, 『민족이야기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기영의 『두만강』 분석』,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49~78쪽; 박영식, 『이기영의 장편소설 『땅』에 나타난 계몽 담론 연구』, 『어문학』 90집, 한국어문학회, 2006, 499~525쪽; 윤영옥, 『이기영 농민소설에 나타난 쌀의 표상과 국가』,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1호, 2010, 127~162쪽;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화사연구』 50집, 민족문화사학회, 2012, 364~399쪽; 김한식, 『이기영 소설과 농촌 체험』, 『우리문학연구』 제41호, 우리문화회, 2014, 399~424쪽; 배개화,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6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155~187쪽 등 참조.
 - 3) 김홍식, 『이기영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안상문, 『이기영 해방 이후 소설 연구 : 북한 문예정책 및 문예이론의 원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06; 박영식, 『이기영 장편소설 『땅』의 개작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7 등 참조.
 - 4) 김윤식, 『이기영의 『땅』론』, 『실천문학』, 1990, 329~353쪽; 홍혜미, 『이기영의 『땅』 분석 :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사립어문학회』 제14집, 사립어문학회, 2001, 119~136쪽; 김동석, 『이기영의 『땅』 연구』, 『어문논집』 제51권, 2005, 321~352쪽; 임향란, 『조선 이기영의 『땅』과 한국 체만식의 『논 이야기』 비교 고찰』, 『국제언어문학』 제22호, 2010, 161~174쪽; 문홍술, 『이기영 『두만강』에 나타나는 매개자의 변이와 그 특성』, 『인문논총』 30집, 2016, 2, 49~79쪽; 조정래, 『이기영의 <두만강> 서사 구조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3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17. 9. 30, 337~362쪽; 이주미, 『『두만강』에 나타난 중국 동북지역 이주 조선인 형상의 함의』, 『우리문학연구』 64집, 우리문화회, 2019. 10, 681~704쪽; 이인표, 『『땅』의 멜로드라마적인 특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75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21. 9. 30, 143~172쪽; 이인표, 『『두만강』(이기영)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사이』 3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12, 245~273쪽.

바 있다. 최근에는 박태일이 이기영의 재북 시기 문필 활동을 확인하면서 기행문집 4권과 작품집 2권 등을 새로 발굴하였으며, 기존에 연구 대상이 되었던 134편에 더하여 107편의 ‘낱글’을 찾아 ‘정론’ 85편(조소친선 53편, 대남 통일전선 전략, 북한 사회주의 찬양 관련 글 등)과 ‘창작문학’으로 22편(수필 11편, 오체르크 3편, 재수록 소설 6편, 문학비평 1편, 좌담 1편)을 새로 발굴하여 분석한다.⁵⁾ 남원진은 리기영의 1946년 원본 『개벽』으로부터 ‘1955년 / 1978년 / 2011년 개작본’ 등이 지닌 판본 변화를 개괄하면서 문학사적 평가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987~2017)에 실린 리기영의 작품을 개괄하면서, ‘북한 문학의 정전’인 100권 분량의 ‘선집’에 ‘리기영’⁶⁾의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총 54편이 수록되어 있음을 분석한다.⁷⁾

북한 문학에서 이기영에 대한 평가 역시 동시대에 이어 사후에도 호평 일색이다. 1950년대 문학사에서 이미 『개벽』과 『땅』을 통해 토지개혁을 “대서사시적인 넓이와 깊이”로 재현한 작가일 뿐만 아니라 『두만강』을 통해 “우리 문학의 거대한 성과”⁸⁾를 산출한 작가로 평가되며, 1990년대 이후에도 “우리 나라 현대소설문학의 거장”이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던 작가”⁹⁾라거나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로까지 이행발전한 우리 나라 문단의 혼치 않은 대가”¹⁰⁾ 등의 평가를

5) 박태일, 『재북 시기 리기영 문학의 실증적 바탕 1』, 『비평문학』 제6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9. 143~171쪽; 박태일, 『재북 시기 리기영 문학의 실증적 바탕 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215~257쪽.

6) 본고에서는 북한식 논조를 사용할 때는 북한식 표기법을 따라 ‘리기영’으로, 남한식 관점이나 인식을 따를 때는 ‘이기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두음법칙의 인정 여부 역시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표라고 판단되기에 ‘무리한 통일’보다는 ‘자연스런 표기 혼용’을 따르기로 한다.

7) 남원진, 『『개벽』과 토지개혁』, 『한국현대문학연구』 39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4. 111~155쪽; 남원진, 『북조선 정전집, 『리기영 선집』 연구-다시, 근대문학의 경계를 생각하다』, 『우리어문연구』 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9. 30. 7~44쪽.

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사회과학출판사, 1959), 196~199쪽, 334~338쪽.

9) 리수림, 『‘민촌’에게 따사로운 비친 은혜로운 해빛 - 위대한 수령남께서 작가 리기영에게 들려주신 사랑과 배려』, 『조선문학』, 1997. 7. 61~68쪽.

10) 리상복, 『민촌과 광복전 그의 창작활동』, 『통일문학』, 2000. 3. 179쪽.

받는다.

리기영(1895. 5 ~ 1984. 8) : 작가. 필명은 민촌이었다. 충청남도 아산군 농촌마을의 가난한 양반가정에서 태어났다. 서당과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소설을 읽고 문학적소양을 키웠으며 1911년 봄에 집을 떠나 5년동안 금광, 탄광, 공사판에서 로동을 하면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목격하고 깊이 체험하였다. 1922년 일본도쿄에 건너가 고학을 하다가 1923년 <간또대지진> 때 귀국하여 소설창작에 전심하였다. 1924년에 처녀작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가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것을 계기로 문단에 들어섰으며 그해부터 잡지 『조선지광』 기자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1925), 『민촌』(1925), 『농부 정도룡』(1926), 『귀이야기』(1926) 등 무산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항거의식을 계급적전지에서 묘사한 작품들을 연속 발표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체 14(1925)년 <카프>조직에 중요한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그후 <카프>의 출판부와 문학동맹을 책임지고 일하면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중략) 일제말기에는 붓을 쥐고 강원도 금강군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조를 지켰다. 해방직후 강원도 인민위원회 교육부장으로 일하다가 1946년 4월부터 조소친선협회 위원장으로 일하였으며 그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1962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리기영은 해방후 40여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이 기간에 다부작장편소설 『두만강』(1부 1954, 2부 1957, 3부 1961)과 『땅』(1948)을 비롯하여 장편실화소설 『한 여성의 운명』(1965), 단편소설 『개벽』(1946), 『농막선생』(1950), 『영웅 김봉호』(1950) 등 수많은 소설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리기영의 작품에는 근대이후 조선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활과 운명이 폭넓고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그는 현대조선문학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이다. <김일성훈장>을 비롯하여 <인민상> 등 많은 수훈과 표창을 받았다.¹¹⁾

11)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2000, 112~113쪽.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문학대사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프롤레타리아문학 발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적시되고,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에는 ‘김일성의 영도’를 받들어 “주체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근대 이후 조선 “농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폭넓고 진실하게 형상화한 “현대조선문학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기영은 리얼리즘적 관점과 한반도 통합문학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작가임에 틀림없다. 프로문학의 기수로서 192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나 「민촌」, 「농부 정도롱」 등의 단편소설에서 드러나는 빈민 대중의 생활상과 저항적 관점을 중시하거나 1930년대 『고향』에서 제기된 지식인과 농민계급의 관계론적 지형을 탐색하는 농민문학의 대가로서만 기술된다면 ‘절반의 이기영’만을 주목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월북한 이래로 작성한 북한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함께 고찰할 때 ‘한반도 문학’의 지형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월북 이후 작품들 중 이기영의 시기별 대표작에 해당하는 ‘단편소설 『개벽』, 중편소설 『형관』, 장편소설 『땅』, 대하소설 『두만강』’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적인 시각에서 통합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 네 작품은 각각 해방기와 분단 시기 이기영 문학의 대표하는 중단편소설이자 장편소설에 해당한다. 『개벽』은 해방 이후 최초의 북한 문예지 창간호 『문화전선』에 게재되면서 ‘토지개혁’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단편소설이다. 중편소설 『형관』의 경우 발표 시기는 해방기인 1946~47년이지만 텍스트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 말기 ‘징용’ 등을 둘러싼 농촌 풍경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기영 특유의 리얼리즘적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합문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장편소설 『땅』은 작품의 1부가 1948~1949년 발표되면서 분단 이후 북한에서 토지개혁의 적실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58년 개작을 수행하면서 ‘2부 조국해방전쟁’ 서사를 덧붙임으로써 작품

의 완성도를 가미하려는 작가적 욕망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대하소설 『두만강』은 한국전쟁 이후 1954~1961년에 걸쳐 작품이 발표되면서 1950년대 북한문학의 지배 담론과 함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저류를 입체적으로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제 1920년대 이래로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농민문학의 기수로서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 평가받고, 해방과 분단 이후 ‘북한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세계를 점검함으로써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단초로서의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본다.

2. 해방기 북한 사회의 생생한 리얼리티 재현 - 리기영의 「개벽」(『문화전선』 창간호, 1946. 7)¹²⁾

이기영의 「개벽」은 해방 직후 최초의 북한 문예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동맹’의 기관지 『문화전선』 창간호에 한설아의 「모자」와 함께 게재되면서 당시 대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문학의 정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조선문학통사』(1959)에서는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빈농민과 지주계급의 생활상 심각한 변동을 흥미있게 묘사하였으며 토지개혁 당시의 농민들의 기쁨을 반영”하였다면서 “낡은 것의 멸망과 새것의 탄생이 지주와 소작인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묘사”¹³⁾되었다고 평가한다. 197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민주개혁을 주제로 한 첫 소설 작품”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환을 형상함으로써 토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뚜렷이 밝혀”¹⁴⁾낸 작품

12) 이 장은 연구자의 기존 발표 논문의 일부를 발표문의 취지에 맞게 수정 재인용한 부분이다.(오태호,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인물 형상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0호, 2020. 12, 271~305쪽)

1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인동, 1988(사회과학출판사, 1959), 196쪽.

1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사회과학출판사, 1978, 75쪽.

이라면서 김일성의 교시를 필두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평가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북한식 토지개혁의 원칙을 배경으로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게 된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 환희를 격동적으로 반영”하면서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을 심오하게 반영한 해방후 농촌주제의 첫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의”¹⁵⁾를 지닌 작품으로 고평된다. 결국 『개벽』은 지주 황주사와 소작농 원침지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진행한 ‘토지개혁의 의의’를 명확하게 포착한 기념비적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 작품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된 며칠 뒤의 시점에서 소작농인 원침지네와 지주 황주사의 심리를 대비시키면서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는 ‘배경 묘사의 적실성, 지주 황주사의 불안한 내면 풍경, 소작농 원침지네의 다면적 반응’ 등의 측면에서 서사적 리얼리티의 생동감이 주목된다. 작품의 첫 번째 의의로는 ‘배경 묘사의 적실성’을 들 수 있다. 토지개혁 법령 발표 며칠 뒤 읍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수만 명의 농민대중이 몰려드는데, 각 동에서 준비해온 표어에는 <오직 밭가리를 하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조선의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등이 쓰여져 있고, 쏟아져 나온 군중 행렬에서는 “우리들 농민에게 토지를 주신 김일성장군 만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만세!”, “조선 자주독립 만세!” 등의 만세 구호와 함성이 이어지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일제 말기에 이어 해방된 뒤에도 비참한 현실 생활이 이어지던 중 토지 분배 소식이 들리자 농민들은 ‘환천희지(歡天喜地)’가 되어 만세를 부르게 된 것이다. 작가는 농민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감격의 표정이 묻어난다면서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시위가 가장 행렬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과노라마를 전개한 듯 장엄한 광경”과 함께 “전무후무한 일대 시위운동”을 연출하는 것으로 포착한다. 하지만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대중들이 아직 “어떤 공포감”에 놀려 “공박관념(恐迫觀念)”이 자리한다면서, “토지를 농민에게 값없이 나누어준다”는 말을 고금에 처음 듣는

15) 오정에 · 리용서, 『조선문학사10 - 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144쪽.

말이기에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은 동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배경 묘사의 리얼리티를 보여준다. 이렇듯 ‘시위 행렬 참가자’와 ‘행렬을 바라보는 군중’을 구분하여 포착함으로써 해방기 북한 사회의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비판적 리얼리스트로서의 작가적 역량이 드러난다.

둘째로 지주인 황주사의 심리를 묘사하는 대목이 작품의 서사적 리얼리티를 보여준다. 열광하는 농민대중과는 다르게 ‘지주계급의 전형’인 황주사는 침통한 기색 속에 “이놈들 어디 보자”는 식으로 거리에 나선다. 황주사에게 시위 군중의 모습은 “독가비 노름판”처럼 느껴지고, ‘낮에 나온 도깨비’들을 보면서 황주사는 자신이 도깨비에 홀리거나 미친 것은 아닌지 반문하며 두려움에 몸을 떠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더구나 몇 달 전에 굶어죽지 않기 위해 돈 200원을 빌린 원침지네 식구들까지 연장을 들고 시위 행렬에 동참할 모습을 본 황주사는 얼이 빠진다. 오늘 원침지를 찾아간 황주사는 땅이 생긴다니 자신 같아도 시위 행렬에 맨발로 뛰어가겠다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토지개혁 법령의 포고문’을 받았을 때의 현기증을 떠올린다. 포고문에서 “살(煞)을 맞은 사람”처럼 새파래져 자신에게 유익한 구절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돈’만 알고 살아온 황주사는 일제 때부터 “지주(地主)라는, 재물(財物)의 화신(化身)이었고, 도깨비”였기에 진작에 토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이남으로 도망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는 조선은행권으로 백원짜리만 삼만여원을 맡아서 명주바지 저고리에 솜과 함께바쳐 가지고 옷을 꾸며 두었다. 약차하면 그옷을입고 피난을갈 심산이다. 그소문은 벌써 이근처에 짝 퍼졌다. 입이 쟈 큰머누리가 비밀을 루설한 까닭이다.

그때 황주사가 좀더 궁리를 했다면 땅을 모조리 팔았을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땅뎡이가 떠나갈줄은 몰랐다. 천지개벽을 하기전에는 설마그런일이 없을줄 알았든것이, 정말 눈에 안보이는 개벽이 하루밤사이에 이세상을 뒤집어 엎었다.¹⁶⁾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황주사는 현금을 옷속에 숨겨두고 피난을 떠날 심산을 가지고 있다.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는 없을 줄 알았던 ‘뒤집힌 세상’을 북한에서 만나게 된 지주의 내면 풍경이 자연스레 포착된 대목이다. 지주인 황주사에게 ‘포고문’은 천지개벽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면서 남쪽으로의 피난을 재촉하게 만든 선언문으로 인식된 것이다. 황주사는 포고문을 펴들고 보면서 “지주를 유지신사(有地身死)라 한다면 자본가도 유지신사(有地身死)”라면서 “돈 가진 놈과 다 같이 죽어야 한다”는 절망적 현실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다 지주와 자본가라는 ‘두 유지신사’가 두 마리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다가 떨어져 죽는 환상 속에서 그 ‘추락하는 용’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체감하게 된다. 지주와 자본가가 ‘개혁의 공간인 북한’에서는 더 이상 몸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집행하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지주의 내면 풍경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로 천지개벽의 변화를 마주하면서 소작농 원침지가 보여주는 심리적 원근감이 서사적 리얼리티의 핵심에 해당한다. 시위 행렬에 참가하지 않은 원침지는 쫓신을 삼는다는 핑계로 혼자 집에 남아 있다가 황주사를 마주한다. 아내와 3남매 등이 시위에 가겠다고 나섰지만, 원침지는 ‘의심과 조심성’으로 ‘열찍은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며칠 전 황주사가 ‘평양 임시정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황주사는 ‘해외 임시정부’가 들어오자면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꾸미는 ‘중앙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평양 정부’의 일이 헛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듯 원침지는 급변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에 대한 반신반의 속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닌 입체적 인물로 그려진다.

지주인 황주사와 소작농 원침지의 ‘천지개벽’에 대한 인식은 처음에는 동일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급적 입장

16) 리기영, 『開闢』, 『문화전선』, 문학예술출판사, 1946. 7, 178~179쪽.

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포착된다. 즉 지주인 황주사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고, 소작농인 원침지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우대받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후 마을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서, 원침지가 제일 가난한 빈농이라서 면 농민조합 준비위원회 7인 위원 중의 1인이 된다. 처음에는 “마치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걸 하듯 벌벌 떨”면서 ‘비굴한 태도’로 거절하지만 농민위원장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된다면서 권유하자 감투를 쓰게 된다.

이기영의 『개벽』은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해방기 북한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작에 해당한다. 지주 황주사의 불안감을 위시한 내면 풍경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원침지의 불안과 기대를 유동하는 소심한 내면 풍경 등이 실감나게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기영의 대표적 단편소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토지개혁’이라는 북한의 ‘개혁 정책’을 둘러싼 계급적 입장 차이와 개인적 시각 차이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3. 일제 말기 지식인의 농촌 생활 적응기 - 『형관』(1946~1947)론

이기영의 『형관(荊冠)』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인 『문화전선』 2~4집에 게재된 중편소설로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50년 단편집 『농막선생』에 개작되어 출간된다. 하지만 개작본과 잡지 연재본 사이의 낙차가 크고, 문예지 게재물이 해방기 이기영의 생생한 내면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재본을 대상으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전적 인물인 문사 박철의 시각을 중심으로 농민 김부득과 허달삼의 캐릭터 등이 일제 말기 농촌 사회의 풍경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는 수작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김민선¹⁷⁾은 해방기에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고

백히는 과정을 통해 주체의 재정립을 꾀한 텍스트로 이기영의 『형관』을 분석하면서 귀향과 절필을 통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의지가 제시되면서 문학자가 귀향 공간에서 노동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농민과의 연대를 통해 민족의 주체로 재생되는 플롯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김홍식¹⁸⁾은 『농막일기』와 『형관』, 『농막선생』 등에 대해 일제 말기와 해방기의 이기영의 텍스트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면서, “주체의 전환 또는 인정투쟁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길”로서 이기영이 일제 말기에 쓴 『농막일기』를 『형관』으로 개작하다가 일단 중단했고, 다시 『농막선생』(조소문화협회중앙본부, 1950. 4)으로 개작한 배경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형관』은 일제 말기 해방 직전의 농촌을 배경으로 강제 징용을 둘러싼 농민들의 갈등을 그리면서, 농민 김부득과 허달삼을 중심으로 사상범 전력이 있는 문사 박철 등의 일화를 통해 일제 말기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김부득은 작품 초반에 자기가 ‘증용(=징용)’에 나가면 어린 자식들과 젊은 아내의 살 방도가 없다면서, ‘미국 비행기’가 공습을 강행할 때 차라리 ‘독와사(=독가스)’를 뿌려대기를 소원하는 다혈질적 인물로 그려진다. “난리가 나서 한바탕 뒤집어엎을”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본놈 조선놈이나 없는놈 있는놈 할것없이 모두 물마른 논꼬에 올챙이 죽음을 했”다면 “자기가 죽어도 시원할것 같은 앙심”¹⁹⁾을 내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허달삼 역시 관청에서 공평하게 ‘증용’을 뽑는다면 자신 역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쟁이 올해 가을 안에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다가 ‘징용장’을 받은 마을 장정들이 모두 도망을 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이후 마을 청년들이 징용을 나가던 날 주재소로 향하던 병구와 태술

17) 김민선에 따르면, 연재본 『형관』(1948)과 개작본 『농막선생』(1950)은 해방기를 바라보는 분단기의 시선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김민선, 『해방기 자전적 소설의 고백과 주체 재생의 플롯-채만식 『민족의 죄인』, 이기영 『형관』 연구, 『우리어문연구』 40집, 우리어문학회, 2011. 5. 30, 359~387쪽)

18) 김홍식, 『해방기 이기영 소설의 재정립 양상 연구-『농막일기』에서 『형관』까지,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365~386쪽.

19) 이기영, 『형관』(1), 『문화전선』 2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6. 11, 126쪽.

일행이 “텐노헤이까의 부르심을 받아 입영하는 병사의 뺨을 치는 경관이 어디있냐”²⁰⁾면서 순사를 폭행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 내용이 그려진다. 결국 먼 장으로부터 쫓긴 대신 ‘운동화 한 켤레’를 구한 징집병들은 원산으로 출발한다.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 문사 박철이 이사해온다. 그리고 “안해의 교만한 서울안목은 이런 농촌사람들의 생활이 하찮어 보이는 모양”이지만, 박철은 도회지의 생쥐처럼 약삭빠른 사람들보다 순박한 촌사람들에게 인간미를 느낀다. 일제 36년간의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이 상세히 설명된 후 박철은 작년 봄에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친해진 사람이 ‘김부득’이라면서 그를 ‘초연한 철인’이거나 ‘탈속한 인물’처럼 인식한다. 왜냐하면 농사꾼의 지혜로 세상을 파악하는 혜안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후 박철은 일생에 농사를 처음 해보면서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체험한다. 그리하여 “소비자를 생산자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늙은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자기네의 기생충적 생활을 합리화하고 근로대중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객이 전도된 인생관”²¹⁾이라고 평가절하하게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어우러져 놀다가 허물이 없어진 뒤로 마을 사람들의 ‘난처한 문제’들을 처리해주면서 마을의 신망을 얻게 된다.

허달삼은 장단을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강원도 정선 아리랑의 지자목을 한 대문 내리패는 것이었다. (중략) 마지막으로 김부득이의 차례가 와서 그는저근너 갈미봉을 불렀다. 남선민요의 느린가락이 유장하게 넘어가는 대목이 끝날무렵에 박철이도 육자배기로 그것을 받아 넘겼다. / 농민들과 한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처음인 박철은 자못 취흥이 도도해서 유쾌하게 노래를 부를수있었다. (중략) 박철이도 소리가 돌아가는대로, 잡가를 모조리 하였다. 천안 삼거리, 양산도, 노래가락, 개성난봉가, 산염불, 二八 청춘 사발가, 마지막에는 제비가까지... 그리고 또한차례의 술상이 버려지자, 두사발을다시 드리켰다. 더먹을라니, 인제는 배가 불러서 못먹겠는데 다행히 술이떠러졌다 한다. / 그래서 이날밤에 그들은 술 서너동이와 두부

20) 이기영, 『형관』(2), 『문화전선』 3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3, 119쪽.

21) 이기영, 『형관』(3), 『문화전선』 4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4, 107쪽.

한말어치와, 콩나물 반식루를 다치우고 새벽달이 돌아올 무렵에 닭우는 소리를 들으며 헤터져 돌아갔다. (중략)

그때 그들은 그다음부터 무슨 잔치가 있을 때 마다 박철이를 청하였고, 박철이도 그럴때는 참석을 한것인데, 인제는 그들과 막혔든 만리장성의 성벽이 툭, 터진셈으로 피차간에 아무런 간격이 없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난처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박철을 찾아와서 물었고, 그렇다치면 박철은 또한 성의껏 그사건들을 처리해 주었다. - 그만큼 박철은 차차 동리간에 인망이높아갔다.²²⁾

인용문 자체는 박철과 농민들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레 형상화된 대목이다. 즉 허달삼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의 한 대목을 부르고, 김부득이 남산민요인 “저근너 갈미봉”을 부른 뒤, 박철이 <육자배기>로 받아 넘기면서 좌중이 취흥에 넘쳐 유쾌하게 한바탕 ‘카니발적 친목’²³⁾을 도모하게 되는 부분이다. 특히 “의식적 행동”으로 농민들과 어우러지면서 ‘지식인 냄새’를 풍기지 않음으로써 농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근히 고소(苦笑)”했다고 함으로써 자신을 ‘서울 장안의 오입쟁이’나 “놀이본 사람”처럼 여기는 데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풀고 친목의 기회”를 얻은 것은 박철에게나 농민들에게나 “유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이 한바탕의 축제를 통해 서로 간격을 느끼던 거리감을 무화시키면서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인용문은 작품의 연재 마지막 대목이다. ‘작자 부기’에 “이 작품은 아직도

22) 이기영, 『형관』(3), 『문화전선』 4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7. 4, 125~127쪽.

23) 바흐젠에게 ‘카니발’은 공식적 축제의 반대의 입장에 있는 양식이다. 공식적 축제가 기존 질서와 가치와 규범을 공고히 영속화하는 ‘불평등의 죽음의 제전’이라면 카니발은 “강렬하게 생동감 넘치며 변형하는 힘이며 다함이 없는 생명력”으로 규정된다. 바흐젠에게는 라블레의 텍스트가 카니발적 세계관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블레가 다양한 기표들을 동원하여 공식 문화를 격하하고 전복하며 그릇된 세계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바흐젠이 말하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격하와 전복, 파괴’와 더불어 사물과 관념 사이의 허위적 위계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부활’이라는 양가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하일 바흐젠, 『프라우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 문화』, 이덕형·최건영 공역, 아카넷, 2001 참조) 이렇게 보면 밤새 술을 마시며 ‘아비한 노래도 함께하는 이 축제의 마당은 ‘카니발적 서사’를 보여주는 장면에 해당한다.

1~2회를 더 써야 하겠는데, 잡지에 너무 오래 실릴 지면도 없고 해서 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단 중지하고 나머지는 전작으로 마자 써서 기회가 있으면 단행본으로 낼까 하니 양해해주기를 바란다. 1947. 3. 17”라고 덧붙여 있기에 추후 개작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실제로 개작된 중편 소설 『농막선생』(1950)에서는 김부득이 도입부에서 미군 비행기가 독가스를 살포했으면 좋겠다는 대목 등을 포함하여 호탕한 성격 형상 대목이 삭제되는 등 문학적 리얼리티를 수정하여 사후적 개작이 작품의 미학적 성과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945년 3월 봄 강원도 산골에 미군 비행기가 공습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형관』은 일제 말기 이기영의 자전적 내용을 배경에 담고 있는 수작이다. 서울에서 슬가해온 사상범 전력을 지닌 문인 박철이 처음으로 농사일을 체험하면서 김부득과 허달삼 등 동네 농민들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서사를 바탕으로 깔고 전개된 작품은 일제의 강제 징용에 얽힌 일화, 탈출 징병자 색출 관련 이야기, 징용 장정 검사 과정과 징병 출정일의 에피소드, 공출 등의 다양한 삽화 등을 통해 해방 전 일제 말기의 가혹한 수탈과 만행을 자연스럽게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 이전 한반도 통합문학의 한 장면에 포함될 수작에 해당한다.

4. 분단 이후 토지개혁의 서사적 안착과 인물 형상화의 괴리 - 『땅』(1948~1949)론

이기영의 『땅』(1948~1949)은 해방기 이래로 문학사에 이르기까지 머슴 출신 농민 광바위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포착한 최초의 장편 소설로서 지속적으로 고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1950년대 『조선문학통사』에서는 『땅』 1부가 “토지개혁 전후로부터 1946년 11월 3일 첫 민주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북반부 농촌현실을 대서사시적인 넓이와 깊이로써 재현한 작품”으로 “옛날의 머슴으로부터 오늘의 인민의 대표자로 장성해가는 주인공

곽바위가 서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평화적 건설시기의 우리 인민들의 새 생활의 거창한 모습, 인민의 창조적 로력 및 도덕적 통일에 바쳐진 이 거대한 서사시적 화폭은 해방 후에 찬란히 개화하게 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²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가에 의하면 『땅』은 『두만강』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즉 『땅』을 장편소설로 집필할 때는 「개간편」과 「수확편」으로 완성할 것을 구상했지만, 『땅』을 마무리한 뒤에 장편소설 『두만강』을 집필하면서 “『땅』에 대한 미련”이 생겼으며 그것이 『땅』을 3부작으로 개작하고 싶은 욕망이었음을 토로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부 ‘조국해방전쟁편’까지만 집필되고 마무리된다. 결국 “『두만강』은 내가 어린 시절-19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서부터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하여 8.15 해방 전까지 끝나게 되고, 『땅』은 해방 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급하게 되었으니 이 두 작품에 포괄된 년대적 배경은 바로 나의 60여 평생과 똑같이 되는 셈”²⁵⁾이었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두 작품 모두 미완의 텍스트로 종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판’을 통한 작가적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구한말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북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아온 체험적 시대상을 문학 작품을 통해 기록하고자 하는 발자크적 리얼리즘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도 『땅』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첫 장편소설”임이 강조되고,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이 세기적인 랍후와 침체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지난날 갖은 억압과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이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며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²⁶⁾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조선문학개관』에서는 “새 인

2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사회과학출판사, 1959), 197~199쪽.

25) 리기영, 『『땅』(제1부)의 정정판을 내놓으며』, 『땅(제1부)』(리기영선집 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7~8쪽.

2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사회과학출판사, 1978, 88쪽.

간의 탄생과 장편소설 『땅』이라는 소재목으로 상세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1990년대 『조선문학사』에 이르면 김일성의 교시가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악독한 계급은 지주계급이었습니다. 지주가 얼마나 우리 농민들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착취하였는가는 소설 『땅』만 읽어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큰 지주나 작은 지주나 별로 달를것이 없으며 작은 지주들도 사실 큰 지주에 못지않게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었습니다.”²⁷⁾라고 적시되면서 『땅』이 “토지개혁의 실시와 새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해방 후 첫 장편소설임을 강조한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기영의 『땅』은 ‘개간편’(1948)과 ‘수확편’(1949)으로 1부가 구성되고, 이후 ‘조국해방전쟁편’(1958) 2부로 확대 창작된다. 1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북한의 토지개혁 전후로 머슴 출신 주인공 광바위가 토지를 분배받아 농토를 개간하고 마침내 마을의 지도적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광바위는 악덕 지주 고병상의 머슴이 되어 천덕꾸러기 생활을 하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이 해방을 맞고, 이듬해 3월 소련 군정과 함께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농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주 고병상의 땅을 분여 받고, 이후 면 위원장 강군의 지도 아래 벌말 개간 사업을 창안하는 등 농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악덕 지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개간 사업이 마무리되고, 광바위는 두레를 조직하여 개간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본다. 광바위는 천대받던 머슴에서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지도적 인물로 변모하고, 전순옥과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농업 진흥 사업에 매진하고, 전순옥 역시 남편의 뜻에 따라 야학을 운영한다. 1부 끝에서 광바위는 마을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도 인민위원회의 대의원으로 추천되고, 조선 전체를 평등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마을로 돌아오는 내용이 그려진다.²⁸⁾

27) 오정에·리용서, 『조선문학사 10』, 사회과학출판사, 1994, 156쪽.

28) 1958년작인 2부의 경우 ‘벌말의 영웅’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광바위가 조국해방전쟁에 참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부차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즉 광바위가 산으로 피난을 가거나 게릴라전에 참가하여 폭격으로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국해방전쟁’ 자체가 ‘산골

1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남한에서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킨 토지개혁의 무구한 미덕”을 추적하고 있는 ‘멜로드라마적 특질’을 주목하면서, “해방기 민주개혁을 통한 북한 체제형성기를 꺾진하게 재현”²⁹⁾하고 있음을 고평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일치”를 통해 무갈등 이론으로 창작방법이 변화하면서 혁명적 낙관주의로 일관된 텍스트가 지닌 “확실성, 혁명성, 일사분란함”³⁰⁾이 서사의 한계로 비판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한’과 ‘신명’의 동시적 시선으로부터 작품이 출발”하면서 “명량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장면들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시대에 대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변화에 대한 흥분이 앞선”³¹⁾ 텍스트로서 성과와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작품인 셈이다.

① 순이 어머니는 전과 달리 괄바위를 여간 위하지 않았다. 그전에는 괄바위를 하치않게 여겼는데 그가 인제는 농촌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토지도 남과 같이 분여를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우를 유달리하고 싶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너지는 염량세태(炎涼世態)를 잘 아는지라, 전자에야 괄 바위를 친했잖아 기껏 술잔이나 파는 것 외에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토지 개혁이 된 지금에는 그도 한 사람 몫으로 행세를 하게 되었다. 만일 그를 하대했다가 어떤 손해를 당할는지 모른다는 리혜타산이 앞을 썼다.

그래 그는 식사도 알쌈 있게 대접하고 옷가지를 자청해서 빨아 주군 하였다. ‘세상이 다, 이렇구나.’

괄 바위는 속으로 웃었으나 하여튼지 그의 친절을 고맙게 받고 있었다. 지금도 강 균의 일행이 괄 바위를 찾는 것을 보자

“네, 네, 괄 위원을 보시려구…… 이리 들어 오십시오. 안방에 계십니다.”

하고 그들을 곧손히 안내하였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괄 바위를 ‘괄 위원’으로

별말만의 일’이 아니라 ‘북한 전체 지역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땅』 1부에서 주목된 토지개혁의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이다.

29) 이인표, 『『땅』의 멜로드라마적인 특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75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21. 9. 30, 143~172쪽.

30) 김윤식, 앞의 글, 329~353쪽.

31) 김한식, 앞의 글, 399~424쪽.

부르기 시작했다.³²⁾

② 고목에 새 짝이 돌아왔다고 할가?…… 오래 동안 짓눌려만 살아 오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인간의 새 봄이 온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농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 점이였다. 인제는 소작인이 아니다. 머슴꾼도 아니다. 전자에는 지주들이 땅 입자라고 어느 동네에서나 세력을 부리고 살아 왔다. / 토지개혁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지주가 없어진 대신, 소작인들이 농토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농촌의 주인공은 전날의 빈농층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그들의 의식을 개변시켰다.³³⁾

③ 별안간 우뢰 같은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동하며 일동은 총기립 자세를 취한다. / 광바위는 웬 영문을 모르고 따라 일어 섰다. 김일성 장군을 위수로 한 주석단이 등단하는 것을 알았다. 그때 광 바위는 (아, 김 장군님!……) 하고 부지중 입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 일동이 착석한 후에 광바위는 김장님을 정면으로 주시하였다. / 그는 김 장군의 사진과 초상화를 많이 보았으나 지척에서 그의 존안을 우러러 뵈옵기는 처음이었다. 그만큼 그는 오직 감격이 벅차 올라서 한동안은 뛰는 기숨을 진정할 수 없었다.

(저 어린이 해방 전에는 삼천만 조선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메시고 강도 일제를 상대하여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 무장 투쟁을 十五성장 동안 하루 같이 계속하시였고, 다시 해방 후에는 조선 인민의 수령으로 인민들을 옳바로 지도하여 민주 건설이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발전을 가져 오게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농민에게는 제일 먼저 토지개혁으로 농토를 주시지 않았는가!……)

광바위는 불현듯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다시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³⁴⁾

32) 리기영, 『땅(제1부)』(리기영선집 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122~123쪽.

33) 리기영, 『땅(제1부)』(리기영선집 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236쪽.

34) 리기영, 『땅(제1부)』(리기영선집 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667~668쪽.

인용문 ①은 광바위에 대한 ‘순이 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머슴이었을 때는 광바위를 하찮은 존재로 업신여기기도 했지만, ‘농촌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토지도 분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어진 ‘순이 어머니’의 성격을 잘 포착한 대목이다. 특히 속물적 인간들의 ‘염량세대’를 이는 ‘순이 어머니’가 손익계산에 익숙한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인물 성격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에 해당한다. 이어서 인용문 ②는 ‘소작인’이나 ‘머슴꾼’이 아니라 “농토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빈농층’을 주목하면서 농토를 분배받은 농민들의 처지를 ‘고목에 돋은 새싹’에 비유하고 “인간의 새봄”으로 함축하며 천지개벽의 세상을 요약하고, ‘의식의 개변’을 동반한 ‘토지개혁’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두 대목은 리얼리스트로서의 이기영의 서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용문 ③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대해 흠모와 감격을 금하지 못하는 광바위의 생각과 마음을 묘사하는 대목은 ‘수령형상문학’의 전조로서 인물의 도식주의적 형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땅』은 이기영의 『고향』에 비해 대작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해방과 토지개혁이라는 천지개벽의 사건”³⁵⁾에 심취한 나머지 작가가 아니라, “단순한 체험자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형상화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기영의 『땅』은 2부를 포함하여 미학적 수준에서는 대작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948~1949년작’인 1부의 경우 광바위의 인물 형상화가 지닌 도식주의적 작위성이 작품 전체를 평면화하고 있고, 공산주의 문학 건설을 주장하는 ‘1958년’에 창작된 2부에서도 소재적으로 한국전쟁을 포함시켜 ‘적이간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일관하면서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서사적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까메오처럼 등장하는 ‘순이 어머니’의 인물 형상화나 시대와 상황을 요약 서술하면서 세부 묘사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대

35) 이상경, 『토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전변에 나타난 인간 변모의 형상화』, 이기영 『땅(下)』 해설, 풀빛, 1992, 323~337쪽.

목에서는 리얼리스트의 거장으로서의 작가적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땅』은 해방기와 1950년대 북한문학의 성과와 한계를 고스란히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합문학의 한 장면에 기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원형 탐색 - 『두만강』(1954, 1957, 1961)론

이기영의 대하소설 『두만강』은 1954년에 제1부, 1957년에 제2부, 1961년에 제3부가 발표되는 등 총 8년에 걸쳐 생산된 장편소설로서 1950~60년대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역사소설에 해당한다. 『조선문학통사』(1959) 이래로 『두만강』은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첫 단계”를 생생하게 비추는 거울로서 심오하게 개성화된 예술적 형상을 통해 “최대의 예술적 수확”을 거둔 작품으로 평가된다.

남한에서는 작품 해설을 수행한 김재용이 이 작품에 대해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총체성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³⁶⁾하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의 시각은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즉 최원식은 1부가 구한말 민중의 삶의 궤적을 진실하게 묘사했지만, 2~3부에서는 관념이 현실을 압도하여 역사의 법칙성에 인물과 사건이 종속된다면서 비판하고³⁷⁾, 조남현은 1~2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3부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의 불철저성과 더불어 투쟁일변도로 형상화된 농민들과 함께 김일성의 절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³⁸⁾ 정호웅 역시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이 작위적인 수법으로 드러난다면서 인물 형상화의 도식성과 역사적 사실의 심각한 왜곡을 비판하고, 유연성이 남발할 뿐만 아니라 3부에서 드러나는 딱딱한 설교조와 감상적 고백조는 결점이라고 비판한다.³⁹⁾

36) 김재용,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학적 형상화」, 이기영 『두만강』 해설, 풀빛, 1989.

37) 최원식, 「소설과 역사의 법칙성 : 이기영의 『두만강』을 읽고」, 『한국 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현대 출판부, 1999.

38) 조남현, 「『두만강』을 통해 본 북한문학」, 『문학사상』, 1989. 6.

북한에서는 『두만강』에 대해 1950년대 문학사에서부터 “전후 우리 문학의 거대한 성과”로 평가한다. 그리하여 『두만강』이 19세기 말엽부터 3·1운동 직전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변되던 전야와 그 이후의 모든 민족적 비극들과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여 일어난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첫단계를 그 복잡한 면모로 생동하게 비쳐준 거울로 되었으며, 심오하고 선명하게 개성화된 예술적 형상과 그리고 이야기와 세부들의 예술적 감흥으로 말미암아 전후문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조선문학에 있어서의 최대의 예술적 수확의 하나”⁴⁰⁾로 평가한다.

197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제1부를 중심으로 “전후에 와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창작된 “력사적주제의 작품”이라면서 “일제의 침략과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인한 우리 나라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정신적장성과정, 계급적각성과정과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⁴¹⁾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1980년대의 『조선문학개관』에서도 3부까지 포함하여 “지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폭넓게 반영한 장편소설”⁴²⁾의 대표작이라면서 “력사적 주제를 현대성의 원칙에서 윽게 해결한 해방후 력사물주제의 성과작의 하나”로 고평된다. 이러한 평가는 199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도 이어진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만강』은 박곰손과 그의 아들 씨둥이로 이어지는 박곰손 가족의 서사를 통해 일제의 수탈상과 항일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에 해당한다. 1부에서는 충청도 천안 부근 송월동을 무대로 19세기 말부터 일제 강점 직전에 이르는 시기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특히 지주 한길주가 낙향하면서 송월동 농민들에게 길을 닦는 부역으로 시작해서 진필 개간공사 부역 등을 강제로 수행하다가 결국에는 농민들의 농토가 약탈되자, 박곰손을 중심으로 집단적 저항이 전개되는

39) 정호용, 「『두만강』론-항일무장투쟁에의 길」, 『창작과비평』, 1989, 가을호.

4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동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사회과학출판사, 1959), 338쪽.

4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사회과학출판사, 1978, 348쪽.

42)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II』, 인동, 1988, 215~219쪽.

내용이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 이진경은 송월동 농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대 초기 양반 출신 저항적 지식인의 형상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3·1 운동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국내 의에서 펼쳐진 의병운동과 부르주아 민족운동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박곰손 일가가 송월동을 떠나 북간도로 향하면서 소설의 무대가 서울과 북간도로까지 넓어지는데, 북간도로 가는 길에 곰손이는 함경북도 무산에 터를 잡고, 아들 씨동이란 의병부대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자다가 용정의 명동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게 된다. 이후 박곰손은 무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고 일제의 가혹한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3부에서는 1920~30년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국내의 항일 운동과 국외의 항일무장투쟁의 양상 등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이 형상화된다. 곰손의 아들 박씨동과 딸 박분이 등이 중심이 되어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진 내용이 펼쳐진다. 분이는 명동학교가 일제의 간도 대도별로 불타버린 후 서울로 와서 고향당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적 의식을 갖게 되고, 씨동은 연길 감옥에서 만난 최혁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반체제운동에 관여하면서 신홍탄광의 파업을 주동하는 인물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소설의 무대가 간도, 무산, 서울 등지로 확대되고 주인공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소설은 1920~30년대의 식민지 현실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서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실망한 씨동이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를 찾아 나서는 내용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① 곰손이는 씨동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잇는다.

“사람 같지 않은거야 양반이 되면 뭘 하구 돈을 벌면 뭘하겠니. 그러나 옳바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불발로면 모든게 다 게있고 게있단다. - 우리 같이 판에 박은 상놈이 글을 배워서 뭘 하느냐, 하지만두 사람이란 글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 배두 반편밖에 못되거든! 그것은 세상이 개명해 갈수록 그런것 같더라.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글 배울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네나 글 공부를 시켜보려고 남들이 비웃는 것도 불계하구 글방에를 보내는거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남보다 잘해가지고 이답에 사람 구실을 하란 말야. - 나무될 것은 떡잎 때부터 알아 본다고 사람도 어려서부터 짝수가 있어야 하는거다.”

곰손이는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그 이들을 이렇게 정중히 타일렀다. 정말 그는 무식한 것이 철천지한이었다. 국문은 겨우 깨쳤지만 소위 진서(眞書)라는 한문을 모르니 답답하였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전놈들이 관문서를 어떻게 꾸미고 구실을 흑작질해 먹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문’은 남의 나라 글이라는데, 랑반들은 왜 제 나라 글이 있는데도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있는가? …… 그것도 랑반질을 하기 위해서 제것을 내버리고 남의 것을 빌어다 쓰는 것일까? 사사에 모를 일은 그들이라고 곰손이는 생각하였다. 하나 그는 글을 모르고 농토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눈앞은 여전히 캄캄하였다.⁴³⁾

② 오늘 자기는 항일유격대의 일원으로서 조국을 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투에 용약 출전하게 되었으며 벌써 첫 전투에서 원수 놈들에게 통쾌한 불벼락을 안기였다. 이 날 전투에서만도 그는 헌병 장교놈을 위시하여 7,8명의 경찰대 놈들을 쏘아 죽였다.

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김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항일 유격대가 창건되고 그래 자기도 유격대의 한 사람으로서 원수 놈들과 최후 결전을 하는 싸움터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며 또한 그것은 조선 청년으로서 얼마나 보람찬 행동이라 할 것이냐!

씨둥이의 아름다운 환상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것은 지금 어둠 속으로 보이는 흰한 눈길이 마치 승리의 길로-장차 닥쳐올 광명의 서광을 비쳐 주는 것과 같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느끼게 하였다…

어느덧 그들의 일행은 재인강의 긴 골짜구니를 빠져나와서 어랑촌 입구에 다달았다.

43) 리기영, 『두만강(1)』, 연변교육출판사, 1955, 7~8쪽.

눈은 여전히 한 대중으로 퍼붓는다. (끝)⁴⁴⁾

인용문 ①은 『두만강』 1부 앞 부분에서 곶손이가 씨동이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면서 글공부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대목에서 당대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부분이 이 작품의 미덕에 해당한다. 특히 곶손이 ‘무식이 한’ 입을 제감하면서 한문과 한글의 차이를 통해 사대주의적 정신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글을 몰라 문맹에 가까운 존재임을 자인하는 대목은 작가의 리얼리스트적 기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용문 ②는 작품 마지막 대목으로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원’으로서의 자부심에 넘치는 씨동이의 내면을 요약 기술한 대목이다. 특히 씨동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존재로서의 ‘감격과 흥분’에 몰두한 채 ‘위대한 김일성의 올바른 영도’에만 의존한 평면적 존재로 전락하고만다. 이러한 대목에서 씨동이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김일성의 지도에 의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수행하는 대상화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 한계가 드러난다.

결국 『두만강』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국내외적 양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기획된 대하소설에 해당한다. 1부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일제의 조선 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충청도의 한 두메산골을 배경으로 친일지주의 성장 과정과 함께 기층 민중과 지식인의 항일운동과 계몽운동의 형상화가 진행되고, 2부에서는 일제 강점 이후 1919년 3·1운동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충청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방을 무대로 국내외의 항일운동과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실상과 함께 친일양반계급의 군상을 형상화하고 있고, 3부에서는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서울과 함경북도 무산, 중국의 간도 지역 등을 무대로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적인 시각의 외연을 확장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만강』은 3부에서 인물의 평면적 제시

44) 리기영, 『두만강 제3부 (하)』(리기영선집 15),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469쪽.

등이 보여주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합문학의 한 장면으로 기록 될 텍스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제 말기 작가의 생애를 구한말에서 1930년대까지에 이르는 조선의 역사와 겹쳐보면서 한반도의 외연을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이기영의 월북 이후 작품들 중 단편소설 『개벽』, 중편소설 『형관』, 장편소설 『땅』, 대하소설 『두만강』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적인 시각에서 통합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해보았다. 1920년대 이래로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농민문학의 기수로서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 평가받고, 해방과 분단 이후 ‘북한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세계를 점검함으로써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단초로서의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해방기의 두 작품인 『개벽』과 『형관』에서는 당대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인물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먼저 『개벽』은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포착하면서 해방기 북한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지주 황주사의 불안감을 위시한 내면 풍경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원칙지의 불안과 기대를 유동하는 소심한 내면 풍경 등이 실감나게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학 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형관』은 해방 직전의 농촌을 배경으로 강제 징용을 둘러싼 일제와 농민들의 갈등을 그리면서, 농민 김부득과 허달삼을 중심으로 사상범 전력이 있는 문사 박철 등의 일화를 통해 일제 말기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특히 박철과 농민들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레 형상화된 취중 풍경에서, 허달삼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의 한 대목을 부르고, 김부득이 남선민요인 “저근너 갈미봉”을 부른 뒤, 박철이 <육자배기>로 받아 넘기면서

좌중이 취흥에 넘쳐 유쾌하게 한바탕 카니발적 친목을 도모하게 되는 부분이 작가의 서사적 역량을 보여준다.

반면에 한반도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땅』과 『두만강』에서는 목적성이 과잉되어 서사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땅』에서 주인공 광바위에 대한 ‘순이 어머니’의 이중적 시선이 드러나는 대목에서는 입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진다. 즉 광바위를 하찮은 존재로 업신여기기도 했지만, ‘농촌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토지도 분여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어진 ‘순이 어머니’의 성격이 잘 포착되고 있다. 반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대해 흠모와 감격을 금하지 못하는 광바위의 생각과 마음을 묘사하는 대목은 ‘수령형상문학’의 전조로서 평면적 인물의 도식주의적 형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두만강』에서도 곰손이가 씨둥이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대목 등은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면서 글공부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당대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서사적 미덕에 해당한다. 이렇듯 1~3부에 이르는 주요 사건에서는 서사적 리얼리티가 생동감 있게 드러나지만, 작품 말미에 김일성 부대의 ‘항일 유격대원’으로서의 자부심에 넘치는 씨둥이의 내면을 요약 기술한 대목 등은 인물의 입체성이 거세되어 평면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존재로서의 ‘감격과 흥분’에 몰두한 채 ‘위대한 김일성의 올바른 영도’에만 의존한 평면적 존재로 전락하는 서사적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기영의 문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적 통합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월북 이후 해방기의 텍스트는 일제 강점기에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서의 감각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문학의 필요성을 제공해주는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분단 고착화 이후 발표된 『땅』 2부(1958)와 『두만강』 3부의 경우 ‘수령형상문학’을 위시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를 관통하는 당문학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술성의 약화와 함께 인물의 입체성이 평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문학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의 텍스트가

북한문학의 실체로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반도 통합문학의 자산이 된다. ‘해방 이전의 이기영’과 ‘분단 이후의 리기영’이 창작한 작품은 함께 한반도 통합문학의 외연을 넓힐 필요를 제기하는 입체적 텍스트인 셈이다.

■ 참고문헌

1. 기초자료

리기영, 『開闢』, 『문화전선』, 문학예술출판사, 1946. 7.
 _____, 『형관』(1)~(3), 『문화전선』 2~4집,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6.11/1947.3/1947.4.
 _____, 『두만강』(1)~(2)(1~2부)(리기영선집 9, 12), 연변교육출판사, 1955.
 _____, 『땅(제1부)』(리기영선집 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_____, 『땅(제2부)』(리기영선집 1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_____, 『두만강』(1~3부)(리기영선집 10, 11, 13, 15),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2. 논문

김강호, 『이기영의 『두만강』론』, 『문창어문논집』 27집, 문창어문학회, 1990, 167~186쪽.
 김동석, 『이기영의 『땅』 연구』, 『어문논집』 제51권, 2005, 321~352쪽.
 김민선, 『해방기 자전적 소설의 고백과 주체 재생의 플롯 - 채만식 『민족의 죄인』, 이기영 『형관』 연구』, 『우리어문연구』 40집, 우리어문학회, 2011. 5. 30, 359~387쪽.
 김윤식, 『이기영의 『땅』론』, 『실천문학』, 1990, 329~353쪽.
 김재용,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학적 형상화』, 이기영 『두만강』, 풀빛, 1989.
 김한식, 『이기영 소설과 농촌 체험』, 『우리문학연구』 제41호, 우리문학회, 2014, 399~424쪽.
 김흥식, 『이기영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_____, 『해방기 이기영 소설의 재정립 양상 연구 - 『농막일기』에서 『형관』까지』,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365~386쪽.
 남원진, 『『개벽』과 토지개혁』, 『한국현대문학연구』 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4, 111~155쪽.
 _____, 『북조선 정전집 『리기영 선집』 연구 - 다시, 근대문학의 경계를 생각하다』, 『우리어문연구』 62집, 우리어문학회, 2018. 9. 30, 7~44쪽.
 이상복, 『민촌과 광복전 그의 창작활동』, 『통일문학』, 2000. 3, 179쪽.
 리수림, 『『민촌』에게 따사로이 비친 은혜로운 해빛 -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리기영에게 들려주신 사랑과 배려』, 『조선문학』, 1997. 7, 61~68쪽.
 문홍술, 『이기영 『두만강』에 나타나는 매개자의 변이와 그 특성』, 『인문논총』 30집, 2016. 2, 49~79쪽.
 박영식, 『이기영의 장편소설 『땅』에 나타난 계몽 담론 연구』, 『어문학』 90집, 한국어문학회, 2006, 499~525쪽.
 _____, 『이기영 장편소설 『땅』의 개작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7.
 박태상, 『이기영의 농민소설 『땅』에 나타난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 『북한학연구』 1집,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0, 225~252쪽.
 _____, 『새로 발견된 이기영의 『기행문집』 연구 :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소련』, 『북한연구학회보』 5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1, 5~27쪽.
 박태일, 『재북 시기 리기영 문학의 실증적 바탕 1』, 『비평문학』 제6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9, 143~171쪽.
 _____, 『재북 시기 리기영 문학의 실증적 바탕 2』,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215~257쪽.

배개화, 『북한 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50집, 민족문학사학회, 2012, 364~399쪽.

_____,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6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155~187쪽.

신형기, 『민족이야기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기영의 『두만강』 분석』,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49~78쪽.

안상문, 『이기영 해방 이후 소설 연구 : 북한 문예정책 및 문예이론의 원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06.

오탈호,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인물 형상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0호, 2020. 12, 271~305쪽.

윤영옥, 『이기영 농민소설에 나타난 쌀의 표상과 국가』,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1호, 2010, 127~162쪽.

이상경, 『토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전변에 나타난 인간 변모의 형상화』, 이기영 『땅(下)』 해설, 풀빛, 1992, 323~337쪽.

이인표, 『『땅』의 멜로드라마적인 특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75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21. 9. 30, 143~172쪽.

_____, 『『두만강』(이기영)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사이』 3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12, 245~273쪽.

이주미, 『『두만강』에 나타난 중국 동북지역 이주 조선인 형상의 함의』, 『우리문학연구』 64집, 우리문학회, 2019. 10, 681~704쪽.

임옥규, 『『두만강』의 구조와 담론 특성 연구』, 『성심어문논집』 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209~246쪽.

임향란, 『조선 이기영의 『땅』과 한국 채만식의 『눈 이야기』 비교 고찰』, 『국제언어문학』 제22호, 2010, 161~174쪽.

정호용, 『『두만강』론 - 항일무장투쟁에의 길』, 『창작과비평』, 1989. 가을호.

조남현, 『『두만강』을 통해 본 북한문학』, 『문학사상』, 1989. 6.

조정래, 『이기영의 <두만강> 서사 구조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3집,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17. 9. 30, 337~362쪽.

최원식, 『소설과 역사의 법칙성 : 이기영의 『두만강』을 읽고』, 『한국 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 출판부, 1999.

홍혜미, 『이기영의 『땅』 분석 :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사림어문연구』 제14집, 사림어문학회, 2001, 119~136쪽.

3. 단행본

권유, 『민촌 이기영의 작가세계』, 국학자료원, 2002.

김상선, 『민촌 이기영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9.

김흥식, 『이기영 소설 연구』, 중앙대 출판부, 1996.

김흥식, 『작가 이기영, 그 치열한 삶과 문학적 진실의 수준』, 예옥, 2020.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II』, 인동, 1988.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200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사회과학출판사, 1959).

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10 - 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이상경, 『이기영 -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이성렬, 『민촌 이기영 평전』, 심지, 2006.

정호웅 편, 『李箕永』, 새미, 1995.

조남현, 『이기영 : 이야기꾼 · 리얼리즘 · 이데올로기』, 건국대 출판부, 2002.

_____, 『이기영』, 한길사, 2008.

미하일 바흐진, 『프리수아 리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 문화』, 이덕형·최건영 공역, 아카넷, 2001.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 After North Korea, Lee Ki-young's masterpiece —

Oh, Tae-ho*

In this paper, among Lee Ki-young's post-North Korea works, short stories 『Gaebyeok』, medium-length novels 『Hyeonggwang』, long novels {Land}, and large-scale novels {Tumen River} We conducted an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literature from a Korean Peninsula perspective. Since the 1920s, he has been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realist as a jockey of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s the best writer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division, confirming the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integrated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starting from the 1920s.

In the two works of the liberation period, 『Gaebyeok』 and 『Hyeonggwang』, the reality of the time was able to face living characters. First of all, 『Gaebyeok』 is a work that realistically embodies the landscape of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captu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including unstable landlord ‘Hwang Jusa’ and timid tenant farmer ‘Won Cheomji’. 『Hyeonggwang』 is a text that vividly captures the scenery of the end of Japan through anecdotes such as Kim Bu-deuk, a farmer, and Park Chul, a writer with a history of ideological criminals, while depicting conflicts

* KyungHee University

between Japanese and farmers over forced labor against the backdrop of rural areas just before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Land} and {Tumen River} are works that clearly reveal narrative limitations due to excessive purpose. Of course, in the {Land} three-dimensional imagery takes place in the part where the double view of Soon-i's mother against the main character Kwak Ba-wi is revealed.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art describing Kwak Ba-wi's thoughts and minds, which cannot help admiring and admiring "Great Leader Kim Il-sung," is a precursor to "Great Figure Literature," and is a representative part of the schematic shape of a planar figure. In the {Tumen River}, the part where Gomson preach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o Sidong is a narrative virtue that brings the importance of writing study to life. However, the summary of the inner side of Sidong, who is full of pride as an "anti-Japanese guerrilla member" of the Kim Il-sung unit, is problematic in that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the character is intensified and planarized.

Lee Ki-young's literature corresponds to a text that simultaneously shows the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integrated Korean literature. The text of the liberation period after North Korea's defection is judged to be a text that provid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literature in that it has a sense of being a representative reali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land} and {Tumen River} announced after the division, it confirms the impossibility of integrated literature in that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characters is being planarized along with the weakening of artistry. Nevertheless, assuming that Lee Ki-young's text is a mirror reflecting the times as a substance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e author Lee Ki-young is a three-dimensional text that raises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integrated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Lee Ki-young, [Gaebyeok], [Hyeongwan], {Land}, {Tumen River}, Land Reform, Japanese Colonial Period, Integrated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Novels